

화용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 영아의 명사 및 동사 습득의 양상

- '산출'과 '이해'를 중심으로-

최수진 방희정* 이순행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영아의 명사와 동사습득이 일어나는 과정을 화용론적 맥락에서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와 영아의 명사, 동사 및 화행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6-18개월 영아와 어머니 12쌍과 23-25개월 영아와 어머니 12쌍을 대상으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맥락과 책을 보는 맥락으로 나누어 어머니-영아의 상호작용을 각각 15분씩 녹화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어머니의 발화에서는 장난감 맥락에서는 명사와 동사의 어휘수와 어휘유형수에 차이는 없었으나 동사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었고, 책 맥락에서는 명사가 더 강조되었으나, 영아의 발화에서는 일관적으로 명사가 더 많이 나와, 초기 명사 우세 현상을 지지하였다. 둘째, 어머니들은 영아에게 언어적 반응을 이끌어내려 시도할 때는 동사보다는 명사를 이끌어냈으나, 비언어적(행동적) 반응을 이끌어내려 할 때는 사물을 구별하도록 하기보다는 행동을 산출하도록 시도하였다. 게다가, 어머니들은 동사를 산출하도록 하기보다는 행동을 산출하도록 영아를 이끌었다. 이러한 패턴은 연령과 맥락에 관계없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초점을 맞추었던 '표현어휘'의 발달에서 벗어나, 영아의 언어 발달에서 화용론적 소통 맥락을 파악하여 분석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방식이 한국 영아들의 언어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화용론적 관점, 언어 발달, 명사/동사 습득, 산출/이해, 화행,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영아의 어휘발달은 상당히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진다. 영아의 초기 어휘 발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서구 중상류층 영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예, Bates, Dale, & Thal, 1995; Bloom, 1993; Bloom, Tinker, & Marguhuis, 1993; Dromi, 1987, 1993)에 따르면, 영어를 말하는 영아

* 교신저자: 방희정, E-mail: hjbang@ewha.ac.kr

들의 경우, 평균 9개월경에 어휘들을 이해하기 시작하지만 12개월이 되어야 새로운 어휘를 산출하기 시작하고, 이해어휘가 50개가 되는 시점은 13개월경이다. 12개월 이후 영아들은 하루에 평균 1단어를 학습하여 18개월에서 19개월 사이에 평균 50개 어휘를 말하게 된다. 한국 영아들의 경우에도 영어권 영아들과 비슷하게, 17개월경에 평균 50개 어휘를 말하고, 23~24개월경에 어휘폭발을 보인다(장유경, 2004a, 2004b).

이러한 양적 측면은 문화권에 관계없이 대체로 보편적인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부터 모국어의 특성과 양육자의 언어적 입력에 따라 어휘습득 양상이 달라진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품사, 특히 명사와 동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예, Choi & Gopnik, 1995; Tardif, 1996). 이 연구들은 한국과 중국 영아들이 영어권 영아들에 비해 명사보다 동사를 더 많이, 또는 명사만큼 동사를 많이 습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Choi(2000)는 한국과 미국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언어적 입력을 주는 것을 밝혔다. 이와 반대로, Gentner(1982)의 경우, 영아들은 모국어나 환경적인 영향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동사보다 명사를 더 빨리 습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해 Choi와 Gopnik(1995)과 Choi(2000)는 한국 영아와 한국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었으므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장유경, 임현정, 박금주, 2004; 이승복, 장유경, 1999)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앞의 연구들과는 달리, 양육자의 영향보다는 인지적 제약성의 영향이 더 크며, ‘명사 우세’라는 보편적인 현상을 따른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Goldfield(2000)는 영어권 영아들에게 명사

가 더 빨리,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에 화용론적 관점으로 접근했다. 즉, 영어권 어머니들은 영아에게 명사에 대해서는 ‘단어’를 산출하도록 이끄는 반면, 동사에 대해서는 ‘행동’을 산출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아들이 동사를 이해하고는 있지만, 어머니들은 그 동사를 산출하게 만들기보다는 행동을 산출하게 만들기 때문에 표현 언어에서 동사가 적게 나온다는 것이다. 아동은 양육자의 발화의 기능적 속성에 주목하며, 만약 양육자의 발화에서 행동을 산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빈번하다면, 동사 산출이 아니라, 이해에 대해 상당한 동기가 있을 것이다. 사실, 언어 발달이 출현하는 시기 동안, 영아의 이해 능력은 산출 능력에 앞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가한다. 그러나 첫 단어 발화가 시작되면서부터, 언어 산출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반면, 단어나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의 역할은 그 이면으로 물러난다(Sevcik, 2006). 영아를 뜻하는 infant란 단어는 라틴어 infans에서 나왔는데, 이는 “말을 안 하는(not speaking)”이라는 뜻이다. 이는 언어 이전(prelinguistic), 비언어적(nonverbal)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뜻이다. 이러한 용어는 아동을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말소리의 발달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Robert & Owens, 2005). 그러나 이는 언어, 즉 말소리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발달하고 있는 ‘의사소통’ 측면을 설명해주지 않는다. 한국 영아들의 경우 이미 8개월 이전부터 어휘를 이해하고(장유경, 2004a), 비슷한 시기부터 의사소통적 몸짓(gesture)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김의향, 김명순, 2006). 또한 한국 영아들의 경우 표현어휘는 주로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에 나타나는 반면, 몸짓은 특정 동작의 수행 및 동사/형용사 범주에 많이 나타난다(장유경 최윤영, 김소연, 2005). 장유경(2004a)은 한국영아의 어휘발달 정도를 연구한 논문에서, 영아들이 가장 많이 산출하고 이해하는

어휘들 50개를 서로 비교해보면 이해어휘의 30% 미만만이 산출되고 있어서 영아가 처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효용, 발음용이성 등 더 많은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어휘발달 정도를 말소리의 '산출 정도'로만 평가하는 것은 영아의 '이해 정도'를 간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Goldfield(2000)의 연구에 기초해, 어머니가 아동을 어떻게 이끄는가에 대한 화용론적 관점을 적용하여 한국 영아의 명사 및 동사 습득을 산출과 이해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국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Choi와 Gopnik(1995), Choi(2000)와 장유경 등(2004), 이승복과 장유경(1999)은 명사 및 동사 습득에 대해 서로 다른 가정과 주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연구들은 표현어휘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양육자의 언어 입력만 분석하거나(Choi, 2000), 아동의 표현어휘 품사만 분석하는(이승복, 장유경, 1999) 등, 어머니-영아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영아의 이해 정도와 어머니-영아 간 상호작용을 다룰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어휘 사용이 맥락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들(Choi, 2000; Goldfield, 1993)이 있으므로, 맥락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선행 연구(장유경, 2004a, 2004b)에서 각각 표현 언어 50단어와 어휘폭발 시기가 나타나는 시기를 중심으로, 어머니의 언어 입력 및 화행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표현어휘를 다룬 국내 연구에서는 한국 영아도 영어권 영아와 같이 명사 우세 현상을 보였으므로,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비교를 통해 영아의 어휘 품사 사용 맥락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영아의 어휘 발달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명사 습득과 동사 습득

영아가 명사와 동사를 어떻게 습득하는가에 관한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입장은 영아들이 문화 간 차이에 상관없이 명사를 더 쉽게, 더 많이 습득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초기 어휘집에서 명사 우세는 영어, 독일어, 터키어, 일본어, 칼룰리어(Kaluli), 만다린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히브리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등 서로 다른 언어 집단에서 보고되었다(예, Gentner, 1982; Bornstein et al., 2006; 장유경 등, 2004; 이해련, 이귀옥, 2005). 6개의 서로 다른 언어들로부터 나온 자료를 이용해, Genter(1982)는 보편적으로 명사가 동사보다 더 접근하기 쉽다고 주장했다. 명사는 구체적인 사물을 참조하기 때문에 지각하기 쉽고, 서로 관련되며 위계적으로 조직된 의미론적 구조를 가지는 반면, 동사는 일시적인 사건이나 상태의 변화를 부호화하고, 다양한 조직 원리를 가지기 때문에 지각적, 의미론적 요인들이 동사보다 명사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휘 습득에는 인지적 용이함, 또는 어휘적 제약성과 같이 아동 내적 요인이 더 중요하며, 언어 간 차이, 또는 환경적인 특성인 언어적 입력은 초기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동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단어 학습을 내적인 언어 제약성의 적용으로 단순화시킨 제약성 이론가들을 포함한다(Kim, McGregor, & Thompson, 2000). 초기의 제약성은 명사 획득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온전한 대상 제약성에 따르면, 아동은 처음에 모든 단어가 사물을 참조하며, 그것은 부분, 속성, 움직임, 일시적 상태나 관련된 특성 보다는 온전한 사물을 참조한다고 가정한다(Markman, 1987, Kim et al., 2000에서 재인용). 인지적 제약성을 지지하는 한 증거로, Au, Dapretto와 Song(1994)에서, 한국 어머니들의 언어적 입력

중 동사가 문장의 말미에 와서 강조되었고, 동사가 많이 입력되었음에도 영아들은 명사를 더 많이 획득하였다.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이승복, 장유경, 1999)에서도 어머니의 발화에서는 동사가 더 현저했음에도, 영아들은 명사 우세 현상을 보였으며, 연구자들은 인지적 제약성을 지지했다.

명사와 동사의 획득에 관한 또 다른 입장은 모국어의 특성, 또는 양육자의 입력의 영향을 강조한다. Tardif(1996)와 Choi와 Gopnik(1995)은 만다린 중국어와 한국어를 배우는 영아의 초기 어휘집에서 동사가 명사만큼 우세한 범주를 구성한다는 것을 밝혔다. Tardif(1996)는 만다린 중국어를 사용하는 영아 10명 중 9명이 표현어휘에서 보통명사 유형보다 주동사 유형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산출했다는 것을 보고했다. Choi와 Gopnik(1995)은 9명의 한국어 사용 영아와 영어 사용 영아를 비교했는데, 한국어 어휘집에서는 명사와 동사가 같은 비율인 반면, 영어 어휘집에서는 명사가 동사보다 더 많은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언어-특정적 문법과 양육자의 입력이 명사와 동사의 획득에서의 언어 간 편차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Choi, 2000). 영어와 한국어는 매우 다른 문법을 가지기 때문에, 명사와 동사와 관련된 언어 간 구조적 차이는 어머니들이 제공할 언어적 입력의 종류에 대한 몇 가지 예측을 가능케 한다(Choi, 2000). 예를 들어,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주어-목적어-동사 순서를 가지며, 주제(즉, 명사)가 이전에 언급되었거나 추론 가능할 때, 흔히 생략되는 구조를 보인다. 즉, 한국어에서, 동사는 문장 끝에 나타나거나 단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영어와 비교할 때, 한국어에서 동사 입력은 더 빈번할 뿐 아니라 더 현저하다. 그러므로 언어의 구조적 특성과 함께,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은 언어 특수성을 띠게 된다. Choi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와 영어를

대상으로 한 Kim 등(2000)의 연구에서는 다소 혼합된 결과를 보였다. 두 언어 모두에서, 50단어 시기의 어휘집에서 동사보다 명사가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영어 어휘집보다 한국어 어휘집에 동사가 유의미하게 많았으며, 한국 어머니들의 입력에도 동사가 유의미하게 많았다. 그들은 인지적 제약성이 아동을 명사로 편향하게 만든다고 해도, 사회적-화용론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빈번하고 현저한 동사 입력은 이러한 편향을 조절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언어의 특성이 명사와 동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같은 언어 안에서조차 서로 다른 맥락이 명사와 동사에 대한 서로 다른 유형의 입력을 발생시킨다는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Goldfield(1993)는 영어를 사용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장난감을 사용한 맥락과 장난감을 사용하지 않은 맥락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봤다. 그 결과, 어머니들은 전체적으로 장난감을 사용하지 않는 맥락에서 더 적은 명사와 더 많은 동사를 사용했다.

맥락에 따른 양육자의 언어적 입력의 차이는 언어 간 연구에서도 진행되어왔다. Choi(2000)는 두 맥락(책읽기와 장난감 놀이)에서 한국어 사용 양육자와 영어 사용 양육자가 자녀에게 하는 발화를 수집했다. 그 결과, 영어 사용 어머니들은 두 맥락 모두에서 명사를 강조한 반면, 한국어 사용 어머니들은 책읽기 맥락에서만 명사를 강조했으며, 장난감 놀이 맥락에서는 동사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밝혔다. Tardif, Gelman과 Xu(1999)의 연구 결과도 비슷하다. Tardif 등은 영어 사용 어머니-영아 쌍과 만다린 중국어 사용 어머니-영아 쌍을 대상으로, 명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책읽기 맥락, 동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움직이는 장난감 맥락, 비교적 중립적인 일상적 장난감 맥락에서의 어머니-영아 간 발화

를 관찰했다. 그 결과, 영어 사용 어머니들은 만다린 중국어 사용 어머니들에 비해 책읽기 맥락에서 유의미하게 많은 명사 유형을 산출했다. 이처럼, 맥락 효과는 양육자의 입력 및 영아의 발화에서 서로 다른 어휘 구성 효과를 보이며, 이는 언어적 특성과 상호작용하며 언어 간에 서로 다른 효과를 보인다. 국내에서는 장유경 등(2004)이 한국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에서 명사가 많다는 결과를 보였으나, 책을 읽는 맥락에서만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한계가 있다. 이와는 달리, 이승복과 장유경(1999)은 놀기, 읽기, 먹기 등 세 가지 맥락에서 언어를 수집하였으나, 문장 끝 어휘 범주만 분석했으며, 세 가지 상황 모두 동사나 서술어로 끝난다는 결과를 보였다. 한국어는 주어-목적어-서술어의 구조를 가지므로, 문장 끝 어휘만 분석한다면 필연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어머니와 영아를 대상으로, 맥락을 달리하여 관찰하고, 좀 더 포괄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어가 갖는 특성과 함께, 맥락이 갖는 특성의 영향으로 양육자의 입력 및 영아의 반응이 달라지는 양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언어 산출과 이해: 아동의 동사 산출과 행동 산출

그동안 언어 습득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언어 산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영아연구의 방법론이 발달하면서, 최근 연구자들(Acredolo & Goodwyn, 1988; Goodwyn & Acredolo, 1993; Goodwyn, Acredolo, & Brown, 2000; Crais, Douglas, & Campbell, 2004; McEachern & Haynes, 2004)은 음성언어가 시작되기 이전의 전조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영아들이 언어를 산출하기 이전에도, 생후 9-10개월경이 되면 의사소통을 위한 의도적인 몸짓을 사용하며, 이러한 몸짓

의 사용이 이후 어휘 발달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2개월경이 되면 첫 단어를 산출하지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형태는 계속해서 남아있게 된다. 이 무렵부터는 상징이 발달하면서, 음성언어뿐 아니라 몸짓의 형태에서도 놀이도식이나 표상적 몸짓으로 상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표상적 몸짓의 발달은 그것들이 학습되는 상징 유형과 맥락에서의 발화의 발달과 병행하는 것 같다(Acredolo & Goodwyn, 1988). 이러한 다양한 몸짓들은 초기 발화 형태를 보완한다(Acredolo & Goodwyn, 1988; Goodwyn & Acredolo, 1993). 예를 들어, '아빠가 TV를 켜 주세요.'란 의미로 아빠의 손을 리모컨에 올려놓으며 "아빠"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몸짓은 결국 단어에 의해 대체된다. Acredolo와 Goodwyn(1988)은 조음 및 음운론 시스템이 발달하고 있는 동안 몸짓이 의사소통을 촉진시킨다고 가설을 세웠다.

한편, 영아는 8-10개월에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하며, 이해는 2세 동안 산출에 앞선다. 또한, 이해와 산출 사이의 통사 유형의 분포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이해하는 단어가 10개 정도일 때는 행위 단어가 50% 정도 되지만, 명사는 14%에 불과하다. 나이가 들면서, 이 행위 단어의 비율이 떨어지고 명사 단어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해에서 나타나는 두 품사의 초기 차이는 산출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데, 산출에서는 명사가 행위 단어보다 더 많아, 적어도 2:1 정도 된다(Robert & Owens, 2005). 더욱이, 영어를 사용하는 영아들은 이해-산출 간 차이가 명사보다 동사에서 더 크다(Goldfield, 2000). 따라서 적어도 영어를 사용하는 영아들은 자신이 아는 명사는 더 많이 산출하는 반면, 아는 동사는 덜 산출한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이는 표현어휘만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초기 동사 학습을 상당히 과소 평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Goldfield, 2000). 이와

관련해, 한국어를 사용하는 조선족 어머니-아동 쌍의 발화 분석에 대한 연구를 한 이해련과 이귀옥(2005)은 후속 연구에서 아동의 '발화' 뿐 아니라 '행동'도 분석할 것을 제안했다. 그들은 어머니가 행위지향 발화(행위 묘사, 행위 질문, 행위 요구를 포함하는 화용론적 발화 유형의 하나)를 했을 때, 아동의 반응은 반드시 언어일 필요는 없고, 언어보다는 주로 행위 자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단순하게 발화 빈도만으로는 어머니의 입력이 아동의 발화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힘들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행위지향 발화가 단순히 아동의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발화 빈도만으로 언어적 입력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양육자의 언어적 입력의 화용론적 측면을 보기 위해서는 아동의 언어 산출 뿐 아니라 행동 산출을 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쉬운 동사와 관련하여 더욱 그렇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첫째, 만약 영아에게 어휘를 산출할 때 명사를 산출하게 하는 것이 동사를 산출하게 하는 것에 비해 더 유리하다면, 어머니들은 영아와 상호작용 시 동사를 산출하도록 하기보다는 명사를 산출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영아의 어휘 이해와 관련하여, 만약 영아가 행동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 동사를 산출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더 유리하다면, 어머니들은 영아와 상호작용 시 동사를 산출하도록 촉구하기 보다는 행동을 산출하도록 시도할 것이다.

양육자-영아 상호작용 내에서의 언어 발달

사회언어학적 언어습득 모형에서 관심이 있는 일차적인 소통 맥락은 양육자-영아 쌍이다. 양육자

는 영아의 행동에 반응을 해주어서, 영아가 자기 의도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차츰 영아들은 이 소통 기술을 반복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교하게 만들어간다. 하지만 이 과정이 일방적인 것은 아니며, 소통의 방향은 순환적이다 (Robert & Owens, 2005). 언어 입력을 둘러싼 사회적 상호작용이 언어습득을 가능하게 만든다. 어머니의 말은 대부분 기능-특수적이다(Ninio & Snow, 1988). 즉, 엄마 말은 단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그 기능을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영아 자신의 의도가 어머니의 입력에서 생겨나기도 한다. 어머니의 화용론적으로 특수하고 예언 가능한 발화는 영아가 의미론적이고 통사론적 범주를 해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Piper(1998, Matychuk, 2005에서 재인용)는 양육자가 아동의 인지적, 언어적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언어적 입력을 해줌으로써 언어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의식적인 것은 아니며, 자녀와 의사소통하기 위한 시도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부모는 영아가 하는 발화의 의미나 형식을 확장시켜주고, 대답을 해주거나 언급을 덧붙임으로써, 그리고 따라 말하거나 아이 말에 대한 피드백을 줌으로써 초기 발화에 반응해준다. 영아의 언어습득은 자신의 사회적 맥락에 들어있고, 그에 따른다. 발달은 영아의 소통 욕구와 지식, 그 맥락에 대한 예상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나 아동의 발화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영아 쌍의 상호작용 내에서 어머니의 화행과 아동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 내에서 어머니가 영아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휘적 입력을 주며, 영아는 어휘를 어떻게 습득해나가

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음 연구 문제들을 다루었다.

1. 연령과 맥락에 따라, 어머니와 영아의 모든 발화에서 명사와 동사의 분포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2. 영아의 어휘 산출과 관련하여, 언어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화행 내에서, 어머니가 아동의 동사 산출을 이끄는 화행과 명사 산출을 이끄는 화행의 비율 간 차이가 있는가? 이는 연령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3. 영아의 어휘 이해와 관련하여, 언어적 반응을 이끄는 화행과 비언어적 반응을 이끄는 화행을 비교했을 때, 어머니가 아동의 동사(언어적 반응) 산출을 이끄는 화행과 행동(비언어적 반응) 산출을 이끄는 화행의 비율 간 차이가 있는가? 이는 연령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방 법

연구 대상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29쌍의 어머니와 영아가 참여하였다. 언어 발달 단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 대상을 16-18개월, 23-25개월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연령 범위 구분은 한국영아의 표현어휘가 50개가 되는 시점이 17개월이며, 어휘폭발이 일어나는 시점은 23-24개월이라는 선행연구(장유경, 2004)를 참고하였다. 첫 번째 그룹의 총 29쌍 중 5쌍은 분석하기에 충분한 상호작용이 나오지 않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4쌍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첫 번째 그룹 영아의 평균 연령은 16.75개월(남8, 여4)이었고, 두 번째 그룹 영아의 평균 연령은 24.08개월(남8, 여4)이었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영아들은 DDST-II 검사 결과, 모두 정상발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그룹 모두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이 75% 이상이었다.

연구 도구 및 과제

MCIDI-K. 영아의 표현어휘 및 이해어휘 수 측정을 위해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MCIDI; Fenson et al., 1993)를 한국어로 옮기고 한국 영아들에게 적절하게 일부 수정한 MCIDI-K(배소영, 2002a, 2002b)를 사용하여 어머니가 직접 영아의 어휘수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MCIDI-K 영유아용은 8-17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18항목, 총 284개의 낱말로 구성되어 있다. MCIDI-K 유아용은 18-36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24항목, 총 641개의 낱말로 구성되어 있다.

책과 장난감. 각 맥락에서 사용된 도구들은 어머니들이 아동에게 이야기할 때, 사물이나 행동, 어느 것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중립성에 기초하여 선택하였다.

책 맥락에서는 동물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허니힐 오늘은 바쁜 날'(Dubravka Kolanovic, 2008)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와 영아가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책의 글씨 부분을 가려서 제공했다. 따라서 책에 나타나 있는 사물 및 동물, 행동이 모두 새로운 정보로 제공되었으며, 이것은 어머니와 영아가 묘사된 사물이나 행동 중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한다.

장난감 맥락에서 또한 여러 명사와 동사,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장난감 자동차와 비행기, 공, 작은 컵 2개와 작은 컵받침 2개, 큰 컵 1개와 큰 컵받침 2개, 작은 동물 인형들(소, 양), 동물 모형(사자, 코끼리, 다람쥐)이 포함된 여러 색깔의 블록이 제공

되었다.

DDST-II. 각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 수준을 알기 위해 신희선, 한경자, 오가실, 오진주와 하미나가 2002년에 표준화한 한국판 DDST-II(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II)를 사용하였다. DDST-II는 출생 시부터 6세 사이의 아동에게 사용되도록 개발되었고, 해당 연령에 적합한 검사 항목에서 아동의 수행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 검사는 개인사회발달 영역 22문항,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영역 27문항, 언어발달 영역 34문항, 운동발달 영역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료 처리

명사와 동사 분석 기준. Goldfield(2000)와 Choi(2000)의 기준을 참고하여 어머니와 영아의 발화에서 명사와 동사의 어휘수(token)와 어휘유형(type)을 분석하였다. 우선, Goldfield(2000)의 방식에 따라 상투적인 말(예, 고맙습니다, 까꿍), 감탄사(예, 우와), 인사(예, 안녕), 동요(예, 떴다 떴다 비행기), 예/아니요 반응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명사 범주에는 보통명사는 포함되었으나, 고유명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동사의 범주에는 주동사와 혼합동사(예, 뛰어가다)가 포함되었으나, 보조동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명명'과 같은 의성어는 명사도, 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가 명사나 동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확실하게 나타내는, 명확한 형태적 표지로 사용되었을 때는 명사나 동사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명명'이 명사상당어 표지와 함께 사용되었을 때(예, 명명이 뭐?)는 명사로, 접미사 -하다와 함께 사용되었을 때(예, 명명하다)는 동사로 분석하였다.

화행(speech act) 분석 기준. '화행'이란 담화 상에서 발생한 발화로 인해 담화자간에 유발되는 개인적, 사회적인 의미 행위를 뜻한다(조성숙, 김미경, 박선언, 홍은미, 조숙환, 2007). 이러한 화용론적 관점에서 어머니의 화행을 분석하기 위해 Inventory of Communicative Acts-Abridged (INCA-A; Ninio, Wheeler, Snow, Pan & Rillins, 1991)를 Goldfield(2000)가 어머니와 영아의 소통적 의도에 맞게 재분류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화행은 화용론적 초점의 차이에 기초해, 3개의 주요한 분류로 조직된다. 첫 번째는 아동으로부터 언어적 반응을 이끌어 내거나 강화시키는 것으로, 11개 유형의 화행으로 구성된다. 이 범주는 1) 아동이 명사나 동사를 산출하도록 명백하게 지시하는 화행, 2) 질문으로 아동의 발화를 촉구하는 화행, 3) 아동의 명사나 동사 산출을 어머니가 모방하는 화행, 4) 아동의 언어적 반응에 대해 강화시키는 화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는 아동으로부터 비언어적(행동적) 반응을 이끌어 내거나 강화시키는 것으로, 11개 유형의 화행으로 구성된다. 이 범주는 1) 일상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명사로 불리는 사물에 대한 행동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화행(즉, 가리키기나 선택), 2) 동사로 불리는 행동을 아동이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화행, 3) 아동의 비언어적 반응에 강화를 주는 화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 번째는 사물이나 행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11개 유형의 화행으로 구성된다.

CLAN 프로그램과 CHAT coding. 어머니와 아동의 발화에서 빈도수를 분석하기 위해 CLA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CLAN 프로그램은 CHIDES (Child Language Data Exchange System)의 일부로, 각 단어의 빈도수(어휘수(token), 어휘종류(type))를 비롯하여, 언어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어를 가진 분석 프로그램이다. CLAN을 통해 분

석하기 위해서는 CHAT이라는 전사방식을 사용해야 하므로, CHAT 방식에 따라 녹화 내용을 전사하였다.

CHAT은 헤더(HEADER), 본문(MAIN LINE), 종속부(DEPENDENT TIER)로 구성된다. 헤더에는 참가자의 나이, 언어 등 전반적인 정보를 기록하고, 본문에는 실제 발화 부분을 전사한다. 종속부에는 연구자의 목적에 맞게 오류, 화행 등, 코드를 선택하여 발화에 대한 보충 설명을 넣을 수 있다.

CHAT 방식과 CLAN 프로그램은 MacWhinney (2007, 2008)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실험 절차

2008년 10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영아의 집에 방문하여 어머니-영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녹화했다. 영아가 연구자나 상황 자체를 낯설어하지 않도록 약간의 준비기간을 가졌으며, 어머니에게는 평소와 같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자녀와 상호작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가지 맥락을 각각 15분씩 녹화하였으며, 연구자는 같은 공간에 있되,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녹화 후, 어머니는 배경질문지와 MCDI-K를 작성하였고, 연구자는 영아와 친숙해진 상태에서 DDST-II를 실시하였다. 이후에 각 녹화파일을 문자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문자화된 파일은 CLAN 프로그램으로 어휘수와 어휘종류를 분석하였다. 각 문장은 연구자가 11개의 화행 패턴에 맞추어 분류하였으며, 11개의 패턴에 들어가지 않는 문장은 화행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적인 통계 부분을 살펴보고, 그룹 및 맥락에 따라 어머니와 아동의 발화에서 명사와 동사의 비율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사용하였다. 또한, 언어적 반응을 이끄는 화행과 비언어적 반응을 이끄는 화행이 명사, 동사, 행동 중 어떤 것을 많이 이끌어내는지, 그리고 이것이 연령, 맥락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12.0K for Windows를 이용하였다.

영아의 어휘수

본 연구에 참여한 영아의 표현어휘수와 이해어휘수가 본 연구에서 연령 그룹 구분을 위해 참고했던 선행연구(장유경, 2004)와 비교해보고, 그룹 간 어휘수를 비교하기 위해 MCDI-K를 실시했다. 그룹 별 어휘수는 표 1과 같다.

장유경(2004)의 연구에서는 17개월 한국영아의 표현어휘수는 평균 53.25(표준편차 55.41), 이해어휘수는 평균 102.33(표준편차 62.21)이었으며, 24개월 한국영아의 표현어휘수는 평균 273.81(표준편차 166.69)인 것으로 제시가 되었다. 본 연구의 영아들

표 1. 그룹 별 표현어휘수와 이해어휘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그룹1	표현어휘수	5	39 (32.46)
	이해어휘수	40	558 (90.58)
그룹2	표현어휘수	39	249.50 (183.03)
	이해어휘수	62	593 (195.89)

과 어휘수 평균을 비교해보면, 두 그룹 모두 표현 어휘수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각각, $t(11) = -1.672, p < .05, t(11) = 0.654, p < .05$), 그룹1의 이해어휘수에서는 차이를 보였다($t(11) = 2.636, p < .05$). 선행연구에서 18개월 이상 영아의 이해어휘수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그룹2의 이해어휘수는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의 표현어휘수와 이해어휘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룹 별로 비교한 결과, 표현어휘수 ($F(1, 22) = 15.595, p < .05$)와 이해어휘수 ($F(1, 22) = 6.024, p < .05$) 모두 그룹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그룹은 서로 다른 언어 발달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와 영아의 발화에서 명사와 동사의 빈도

연령과 맥락에 따라 발화에서 명사와 동사의 빈도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를 측정하고, F 검증을 실시하였다. 단순히 어휘 발화의 빈도 뿐 아니라 어휘종류수도 함께 증가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어휘수(token)와 어휘종류수(type)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어휘수(token)는 어휘종류(type)가 반복 사용되었을 때, 총 어휘의 수를 의미하며, 어

휘종류(type)의 수는 중복된 단어를 하나의 종류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한 영아가 '공, 사과, 공, 공, 강아지'라는 발화를 했다면, 이 영아의 어휘수는 5개이고, 어휘종류의 수는 3개가 된다. 표 2, 표3, 표 6, 표7은 각각 영아와 어머니의 연령별, 맥락별 명사와 동사의 빈도를 나타낸다.

영아의 경우, 두 연령 그룹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16-18개월의 경우, 두 맥락 모두에서 명사 어휘수($F(1, 11) = 15.634, p < .05$)와 명사 유형($F(1, 11) = 15.422, p < .05$)이 동사 어휘수와 동사 유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많이 나왔다. 23-25개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 맥락 모두에서 명사 어휘수($F(1, 11) = 15.365, p < .05$)와 명사 유형($F(1, 11) = 15.416, p < .05$)이 동사 어휘수와 동사 유형에 비해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의 어휘에 명사가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연령 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책 맥락에서의 동사어휘수의 차이($F(1, 22) = 3.491, p < .05$)를 제외하고 모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장난감 맥락-동사 어휘수: $F(1, 22) = 8.311, p < .05$; 장난감 맥락-동사 유형: $F(1, 22) = 12.571, p < .05$; 장난감 맥락-명사 어휘수: $F(1, 22) = 18.055, p < .05$; 장난감 맥락-명사 유형: $F(1, 22) = 19.076, p < .05$;

표2.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에서 그룹1 영아의 명사와 동사 사용

	장난감 맥락				책 맥락			
	명사 어휘수	명사 유형	동사 어휘수	동사 유형	명사 어휘수	명사 유형	동사 어휘수	동사 유형
평균	0.92	0.25	0.00	0.00	5.33	1.75	0.00	0.00
표준편차	0.00	0.00	4.15	1.87	0.00	0.00	7.88	2.77

표3.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에서 그룹2 영아의 명사와 동사 사용

	장난감 맥락				책 맥락			
	명사 어휘수	명사 유형	동사 어휘수	동사 유형	명사 어휘수	명사 유형	동사 어휘수	동사 유형
평균	28.25	10.75	10.50	4.67	27.17	13.33	6.33	3.33
표준편차	12.62	4.56	20.02	6.96	11.74	5.47	23.58	11.50

표4. 각 영아 그룹에 대한 맥락×품사 반복측정 결과

		<i>F</i>	유의확률
그룹1	어휘수	맥락	1.566
		품사	7.707
	어휘 유형	맥락 × 품사	1.566
		맥락	0.044
	어휘 유형	품사	6.851
		맥락 × 품사	0.044
그룹2	어휘수	맥락	0.806
		품사	15.365
	어휘 유형	맥락 × 품사	0.474
		맥락	0.188
	어휘 유형	품사	15.416
		맥락 × 품사	8.475

* $p < .05$

책 맥락-동사 유형: $F(1, 22) = 4.462, p < .05$; 책 맥락-명사 어휘수: $F(1, 22) = 0.258, p < .05$; 책 맥락-명사 유형: $F(1, 22) = 11.509, p < .05$. 즉, 동사어휘수를 제외하고, 더 높은 연령대에서 더 많은 어휘수와 더 많은 어휘종류수를 보였다.

맥락 간 차이 검증 결과, 더 어린 연령대에서는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각 연령별로 2(맥락; 장난감 맥락, 책 맥락)×2(품사; 동사, 명사) 반복측정을 한 결과, 16-18개월의 경우 어휘수와 어휘 유형 모두 품사 주효과는 있었으나, 맥락 주효과와 맥락 × 품사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25개월의 경우 어휘수에서는 16-18개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맥락 주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휘유형에서는 맥락 × 품사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즉, 23-25개월의 영아의 경우, 장난감 맥락에서는 책 맥락에 비해 동사 유형을 더 많이 사용했으나, 책 맥락에서는 장난감 맥락에 비해 명사 유형을 더 많이 사용했다. 각각에 대한 통계치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상호작용 효과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한 단순주효과 분석은 표 5에 제시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낸 그림 1과 함께

표5. 영아 그룹 2, 어휘유형의 맥락 × 품사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변량원	<i>F</i>	유의확률
맥락		
맥락@명사	2.025	0.182
맥락@동사	1.009	0.337
품사		
품사@장난감	13.610	0.004 *
품사@책	15.207	0.002 *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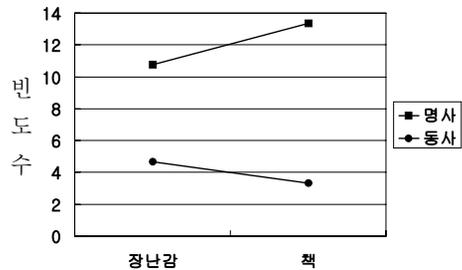


그림1. 영아 그룹 2, 어휘유형의 맥락 × 품사 상호작용 효과

보면, 두 맥락 모두에서 명사유형이 더 많았으나, 그 차이는 책 맥락에서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경우 영아의 경우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16-18개월과 23-25개월의 어머니 모두 장난감 맥락에서는 어휘수와 어휘 유형의 빈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책 맥락에서는 두 연령 모두 어휘수와 어휘 유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그룹1의 어휘수: $F(1, 11) = 7.666, p < .05$; 그룹1의 어휘유형: $F(1, 11) = 36.48, p < .05$; 그룹2의 어휘수: $F(1, 11) = 18.091, p < .05$; 그룹2의 어휘유형: $F(1, 11) = 93.828, p < .05$). 즉, 두 그룹 모두 장난감 상황에서는 명사와 동사의 어휘수와 어휘유형에 차이가 없었으나, 책 상황에서는 명사 어휘수와 명사 어휘유형이 더 많았다.

연령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난감 상황에서는

표6.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에서 그룹1 어머니의 명사와 동사 사용

	장난감 맥락				책 맥락			
	명사 어휘수	명사 유형	동사 어휘수	동사 유형	명사 어휘수	명사 유형	동사 어휘수	동사 유형
평균	122.83	32.33	128.00	32.50	181.08	51.92	126.00	30.08
표준편차	38.72	10.15	43.40	9.05	31.84	9.96	58.19	16.64

표7.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에서 그룹2 어머니의 명사와 동사 사용

	장난감 맥락				책 맥락			
	명사 어휘수	명사 유형	동사 어휘수	동사 유형	명사 어휘수	명사 유형	동사 어휘수	동사 유형
평균	151.83	42.33	166.33	37.25	260.60	72.00	176.75	37.58
표준편차	48.37	9.21	48.18	12.25	59.86	9.30	49.04	14.46

그룹2의 동사어휘수($F(1, 22) = 4.593, p < 0.05$)와 명사유형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1, 22) = 5.174, p < 0.05$), 즉, 그룹2의 어머니들이 동사를 더 많이 말하며, 명사를 더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책 상황에서는 역시 그룹2의 동사어휘수($F(1, 22) = 6.723, p < 0.05$)와 명사어휘수($F(1, 22) = 13.069, p < 0.05$), 명사유형수($F(1, 22) = 9.961, p < 0.05$)가 유의미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룹2의 어머니들이 동사와 명사를 더 많이 말하며, 명사를 더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연령 그룹의 명사와 동사의 어휘수와 어휘종류의 비율은 서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룹2의 어머니들이 동사나 명사의 어휘수나 어휘종류를 더 많이 말한다고 해도, 그 비율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락 간 차이 검증을 위해 각 그룹에 대해 2(맥락: 장난감 맥락, 책 맥락) \times 2(품사: 동사, 명사) 반복측정을 한 결과, 두 그룹 모두 어휘수와 어휘유형 모두에서 맥락 주효과, 품사 주효과, 맥락 \times 품사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 각각에 대한 통계치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상호작용 효과를 더 자세히

표 8. 각 어머니 그룹에 대한 맥락 \times 품사 반복측정 결과

		<i>F</i>	유의확률
그룹1	어휘수	맥락	7.107 0.022 *
		품사	7.666 0.018 *
		맥락 \times 품사	46.215 0.000 *
	어휘 유형	맥락	8.200 0.015 *
		품사	36.480 0.000 *
		맥락 \times 품사	51.192 0.000 *
그룹2	어휘수	맥락	17.578 0.002 *
		품사	18.091 0.001 *
		맥락 \times 품사	31.409 0.000 *
	어휘 유형	맥락	19.996 0.001 *
		품사	93.828 0.000 *
		맥락 \times 품사	4.92 0.000 *

* $p < .05$

살펴보기 위한 단순주효과 분석은 표 9와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9와 표 10 및 그림 2, 그림 3을 함께 살펴보면,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는 책 맥락과 명사에서 유의했음을 볼 수 있다. 즉, 각 품사의 빈도수는 책 맥락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맥락에 따라 명사의 빈도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이 때, 비율 차이 검증을 위해 각 비율을 arc sin 변환시켜 사용하였다.

표 9. 그룹1 어머니의 맥락 × 품사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변량원	어휘수		어휘유형	
	F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맥락				
맥락@명사	19.548	0.001*	24.188	0.000*
맥락@동사	0.045	0.835	0.854	0.375
품사				
품사@장난감	0.298	0.596	0.014	0.907
품사@책	27.064	0.000*	51.761	0.000*

* $p < .05$

표 10. 그룹2 어머니의 맥락 × 품사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변량원	어휘수		어휘유형	
	F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맥락				
맥락@명사	50.348	0.000*	37.982	0.000*
맥락@동사	0.336	0.574	0.013	0.911
품사				
품사@장난감	1.345	0.271	2.574	0.137
품사@책	54.010	0.000*	159.072	0.000*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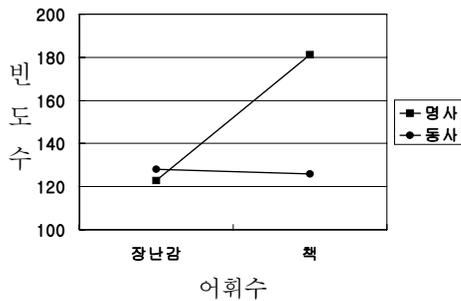


그림 2. 그룹1 어머니의 맥락 × 품사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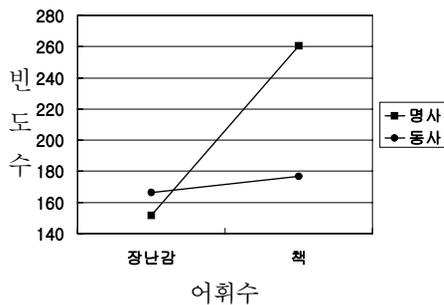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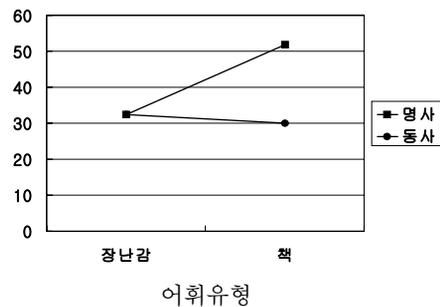


그림 3. 그룹2 어머니의 맥락 × 품사의 상호작용 효과

화행의 비율 차이 분석

화행 분석 결과, 모든 연령과 맥락에서 사물과

행동을 설명하는 화행이 가장 많았다. 장난감 맥락에서는 두 연령그룹 모두에서 비언어적 반응을 유도하거나 강화하는 화행이 더 많았으며, 책 맥락에서

는 그룹1의 경우 비언어적 반응을 유도하거나 강화하는 화행이, 그룹2의 경우 언어적 반응을 유도하거나 강화하는 화행이 더 많았다. 각 화행의 비율을 표11에 제시했다.

본 연구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언어적 반응을 유도하거나 강화하는 화행 중 명사를 산출하도록

촉구하는 화행과 동사를 산출하도록 촉구하는 화행의 비율을 구하고, 비언어적 반응을 유도하거나 강화하는 화행 중 사물을 가리키거나 선택하는 촉구하는 화행과 행동을 산출하도록 촉구하는 화행의 비율을 구하였다. 이 중 명사 산출 화행과 동사 산출 화행은 ‘어휘의 산출’ 부분에 해당되고, 사물 선택 화행은 ‘명사의 이해’ 부분에, 행동 산출 화행은 ‘동사의 이해’ 부분에 해당된다. 각각의 비율은 그림 4, 그림 5와 표 12,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든 연령 그룹과 맥락에서 같은 패턴의 화행 비율이 나왔다.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을 보면, 어머니들은 영아에게 언어적 반응을 이끌어내려 시도할 때, 동사보다는 명사를 이끌어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 번째 칸과 네 번째 칸을 보면, 어머니들은 영아에게

표11. 연령별, 맥락별 화행의 비율

		언어적	비언어	사물 및
		반응	반응	행동
		유도/강화	유도/강화	설명
그룹1	장난감 맥락	8.30%	33.56%	58.13%
	책 맥락	12.28%	19.78%	67.94%
그룹2	장난감 맥락	22.07%	26.17%	51.76%
	책 맥락	27.45%	14.16%	58.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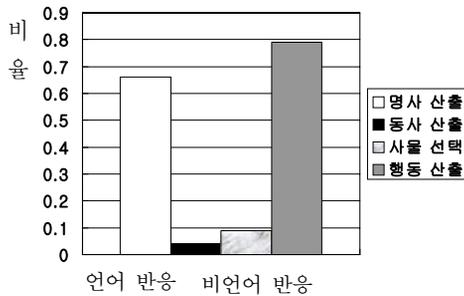


그림 4. 그룹1 어머니의 화행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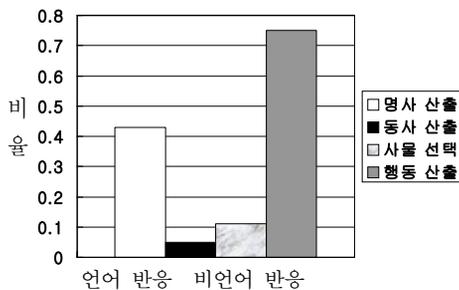


그림 5. 그룹2 어머니의 화행 비율

표12. 그룹1 어머니의 화행 비율

	장난감 맥락				책 맥락			
	명사 산출	동사 산출	사물 선택	행동 산출	명사 산출	동사 산출	사물 선택	행동 산출
평균	0.66	0.04	0.09	0.79	0.63	0.11	0.15	0.77
표준편차	0.28	0.08	0.09	0.14	0.29	0.21	0.13	0.17

표13. 그룹2 어머니의 화행 비율

	장난감 맥락				책 맥락			
	명사 산출	동사 산출	사물 선택	행동 산출	명사 산출	동사 산출	사물 선택	행동 산출
평균	0.43	0.05	0.11	0.75	0.50	0.07	0.18	0.75
표준편차	0.17	0.04	0.09	0.15	0.22	0.08	0.14	0.18

비언어적 반응을 이끌어낼 때, 사물을 구별하도록 하기보다는 행동을 산출하도록 시도하였다. 게다가, 두 번째 칸과 네 번째 칸을 보면, 어머니들은 동사를 산출하도록 하기보다는 행동을 산출하도록 영아를 이끌었다.

통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비율을 arc sin 변환시켜 2(화행; 언어, 비언어) × 2(품사; 명사/사물, 동사/행동) 반복측정을 실시하였다. 각 측정치를 표 14에 제시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한 단순주효과 분석은 표 15와 표 16에 제시하였다. 표 15, 표 16 및 그림 6, 그림 7을 함께 살펴보면,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는 모든 조건에서 유의했음을 볼 수 있다. 즉, 어머니들은 영아에게

표 14. 각 영아 그룹에 대한 화행 × 품사 반복측정 결과

			F	유의확률
그룹1	장난감 맥락	화행	3.990	0.071
		품사	0.232	0.639
		화행 × 품사	149.826	0.000*
	책 맥락	화행	13.508	0.004*
		품사	0.003	0.956
		화행 × 품사	35.624	0.000*
그룹2	장난감 맥락	화행	21.864	0.001*
		품사	4.157	0.066
		화행 × 품사	170.498	0.000*
	책 맥락	화행	27.341	0.000*
		품사	0.371	0.555
		화행 × 품사	66.814	0.000*

* $p < .05$

표 15. 그룹1의 화행 × 품사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변량원	장난감 맥락		책 맥락	
	F	유의확률	F	유의확률
화행				
화행@명사	45.379	0.000*	16.826	0.002*
화행@동사	224.791	0.000*	36.256	0.000*
품사				
품사@언어	38.581	0.000*	18.445	0.001*
품사@비언어	93.562	0.000*	55.741	0.000*

* $p < .05$

표 16. 그룹2의 화행 × 품사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변량원	장난감 맥락		책 맥락	
	F	유의확률	F	유의확률
화행				
화행@명사	49.139	0.000*	15.601	0.002*
화행@동사	128.598	0.000*	109.206	0.000*
품사				
품사@언어	132.230	0.000*	50.828	0.000*
품사@비언어	55.798	0.000*	32.260	0.000*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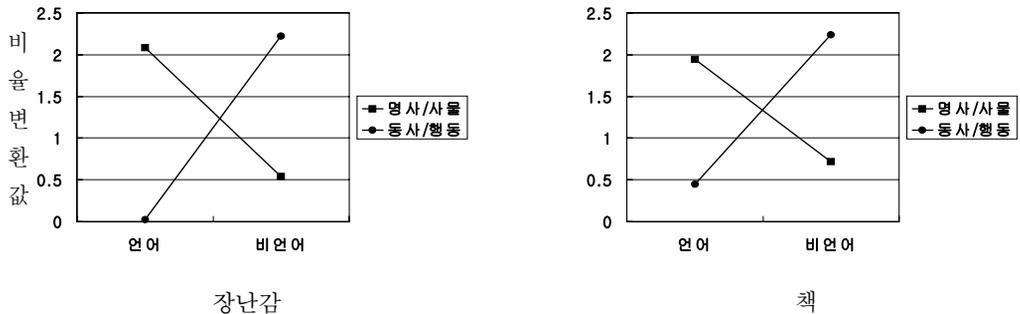


그림6. 그룹 1의 화행 × 품사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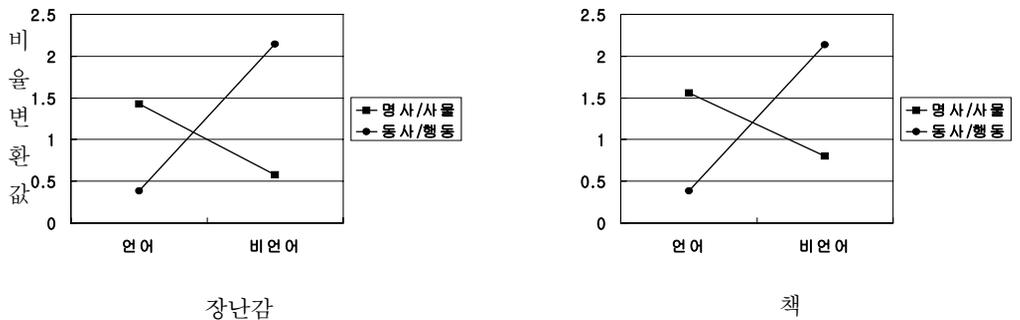


그림7 그룹 2의 화행 × 품사 상호작용 효과

동사를 산출하게 하기보다는 명사를 산출하도록 시도하며, 동사를 말하게 하기보다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맥락과 연령에 따라서 이러한 경향이 달라지는가를 보기 위해 연령 변수와 맥락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F(1, 22) = 0.869, p < .05$)과 맥락($F(1, 22) = 1.747, p < .05$) 모두에서 상호작용을 보이지 않았다. 즉, 위와 같은 패턴은 연령이나 맥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화행의 비율이 연령별로 달라지는지를 보기 위한 분산분석에서는 책 맥락에서의 언어적 반응을 이끄는 화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즉, 장난감 맥락에서 그룹1의 어머니들은 그룹2의 어머니들에 비해 비언어적 반응을

이끄는 화행($F(1, 22) = 6.463, p < .05$) 과 사물 및 행동을 설명하는 화행($F(1, 22) = 4.58, p < .05$)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한 반면, 그룹2의 어머니들은 그룹1의 어머니들에 비해 언어적 반응을 이끄는 화행을 더 많이 사용했다($F(1, 22) = 23.19, p < .05$). 책 맥락에서도 장난감 맥락과 비슷하게, 그룹1의 어머니들은 그룹2의 어머니들보다 비언어적 반응을 이끄는 화행($F(1, 22) = 4.204, p < .05$)을 더 많이 사용한 반면, 그룹2의 어머니들은 그룹1의 어머니들보다 언어적 반응을 이끄는 화행을 더 많이 사용했다($F(1, 22) = 13.729, p < .05$).

맥락 간 비교 분석에서는, 두 연령 모두 같은 결과를 보였다. 즉, 그룹1과 그룹2 모두 장난감 맥락과 책 맥락에서 언어적 반응을 이끄는 화행의 비율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비언어적 반응을 이끄

는 화행은 두 그룹 모두 장난감 맥락에서 더 많이 사용하였고(그룹 각각, $F(1,11) = 48.469, p < .05$; $F(1,11) = 47.614, p < .05$), 사물이나 행동을 설명하는 화행은 두 그룹 모두 책 맥락에서 더 많이 사용하였다(그룹 각각, $F(1,11) = 18.792, p < .05$; $F(1,11) = 5.513, p < .05$).

논 의

본 연구는 어머니-영아 쌍을 대상으로 첫째, 연령과 맥락별로 영아와 어머니의 어휘사용방식이 다른지 살펴보고, 둘째, 어머니가 영아와 상호작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영아의 반응을 이끄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24쌍의 어머니-영아의 집을 방문하여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맥락과 책을 보는 맥락에서의 상호작용을 녹화하였다. 녹화 파일을 문자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머니와 아동의 어휘수와 어휘유형수를 분석하였고,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각 연구 문제에 따른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 명사 우세 현상

초기 언어 발달 시기에 명사가 우세한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초기 명사 우세 현상을 지지했다. 이러한 초기 명사 우세 현상은 연령이나 맥락과는 상관없이 나타났다. 그러나 영아의 명사 우세 현상이 양육자의 입력과 완전히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가하는 것은 확증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도 명사를 더 많이 사용하였던 책 맥락은 물론, 장난감 맥락에서는 어머니들이 명사와 동사를 비슷한

수준으로 발화하였음에도, 영아의 발화에서는 여전히 명사가 더 우세하였다. 특히, 장난감 맥락에서는 책 맥락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사가 더 강조되었는데도 명사 우세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언어적 입력에 상관없이 초기 어휘집에서는 명사가 우세하다는 증거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Choi, 2000; Kim 등, 2000)와 같이 어머니의 입력에서 동사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Choi(2000)의 연구에서는 영어권 어머니들은 두 맥락 모두에서 명사를 강조하고 많이 말한 반면, 한국어권 어머니들은 책 읽기 맥락에서만 명사를 강조하고, 장난감 맥락에서는 동사를 현저하게 많이 사용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책 읽기 맥락에서는 명사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나, Choi의 연구와는 달리 장난감 맥락에서는 동사 우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장난감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동사가 더 많이 쓰이긴 했으나, 어휘수 면에서는 명사와 동사의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이는 곧 어떤 맥락에서든 어머니의 발화에서 명사가 더 많이 나왔거나 비슷하게 나왔다는 의미이므로, 명사 우세 현상이 어머니의 발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인지는 결론내릴 수 없다. 다만, 그룹2의 영아들이 어휘유형에서 맥락 × 품사 상호작용 효과를 보인 것은, 영아가 인지적 제약성으로 인해 명사로 편향된다고 해도, 화용론적인 맥락은 이를 상대적으로 완화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어머니-영아의 화용적 의사소통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발화에서 명사와 동사가 사용되는 화용론적인 맥락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화행을 소통적 의도에 맞게 분류하고, 그 비율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사물과 행동을 설명

하는 화행이 가장 많았으며, 장난감 맥락에서는 비언어적 반응을 이끄는 화행이 더 많았다. 그러나 책 맥락에서는 그룹1의 경우 비언어적 반응을 이끄는 화행이, 그룹2의 경우 언어적 반응을 이끄는 화행이 더 많았다.

언어적 반응과 비언어적 반응을 이끄는 화행 중 명사를 이끄는 화행과 동사를 이끄는 화행, 행동을 이끄는 화행을 비교한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은 지지되었다. 즉, 영아의 어휘 산출과 관련하여, 어머니들은 영아와 상호작용 시 동사를 산출하도록 하기보다는 명사를 산출하도록 이끌었으며, 영아의 이해와 관련하여, 동사를 산출하도록 촉구하기 보다는 행동을 산출하도록 시도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인 Goldfield(200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연령과 맥락에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들이 영아의 수준에 맞추어 상호작용함을 의미하며, 영아들이 아직 동사를 산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동사를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머니들은 영아의 동사 이해를 이끌어내고, 촉구하며, 지지한다. 이는 어휘 산출에 기초한 아동의 어휘 측정은 동사보다는 명사에 치우쳐져 있음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에서 나타난 명사우세 현상도 표현어휘를 측정했기 때문이며, 표현어휘에 기반을 둔 명사우세 현상은 전반적인 언어발달을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다른 맥락과 화용론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명사 우세 현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에서 화행을 분석하는 것은 이를 뛰어넘어 화용론적인 맥락을 살펴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행 분석은 어머니가 영아의 명사 산출을 명백하게 촉진시키는 한편, 영아들이 동사를 이해한다고 암시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을 증명한다(Goldfield, 2000). Nelson & Bonvillian(1973)은 영아들이 행동을 하

거나 사물에 이름을 붙일 수는 있지만, 행동과 이름 붙이기를 결합시키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적어도 말을 배우는 시작 단계에서 동사는 언어적 행동보다는 비언어적 행동과 더 밀접히 연결된다.

한편, 더 어린 연령대의 어머니들은 두 맥락 모두에서 비언어적 반응을 이끄는 화행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더 높은 연령대의 어머니들은 언어적 반응을 이끄는 화행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즉, 언어적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영아에게는 비언어적 반응을 더 많이 촉구한 반면,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해 있는 영아에게는 언어적 반응을 촉구한 것이다. 맥락 간에는 장난감 맥락에서 비언어적 반응을 촉구하는 화행이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되어, 장난감 맥락에서 행동 지향적인 발화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 특성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 어머니들이 참여한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한국 어머니들이 명사보다는 동사를 강조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한국 어머니를 포함한 동양권 어머니들의 특성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였다. 맥락 간 분석에서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품사를 강조하긴 했으나, 맥락 내에서 빈도수를 비교했을 때는 책 맥락에서는 명사가 우세하게 나온 반면, 장난감 맥락에서는 명사와 동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것이다. 이는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 동양권보다는 서양권에서 더 자주 나오던 패턴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어머니들의 가르침 방식이 이전에 비해 서구식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의향과 김명순

(2006)은 영아의 의사소통적 몸짓과 어휘 간의 관계를 살펴본 논문에서, 자신들의 한국 어머니 피험자들이 미국 중산층 어머니들의 '이름부르기 게임(naming-game)' 처럼 사물에 대해 명명하기를 가르치고 끊임없이 영아를 배우도록 격려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한 바 있다. 또한, 강옥경과 김명순(2005)에 의하면 어머니들이 영아의 초기 어휘에 대해 판단하는 정도가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달랐는데, 미국 어머니들은 영아를 가르치려는 경향이 심해 '어휘의 환상' 현상이 나타나 자신의 영아 자녀가 음성만을 내뱉어도 이것을 단어로 판단하여 매우 말을 잘한다고 인정하는 반면, 프랑스 영아 어머니들은 '단어는 하나도 말을 못해요'라고 여기며 단어를 익히는 것은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도 많은 어머니들이 영아에게 사물이나 그림을 가리키며 이름을 말하도록 계속해서 촉구하며, 의미 없는 발성에도 의미를 부여하려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장난감 맥락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아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동양이나 서양 문화권으로 살펴보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는 이미 5-10년 이상 된 연구가 많으므로 본 연구를 확장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표현어휘에만 초점 맞추어져 있던 영아의 언어 발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화용론적 맥락을 살펴볼 것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입력은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 맞추어져 이루어지며, 영아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입력이나 아동의 말화에만 초점 맞추

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영아 쌍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녹화하고, 그를 토대로 분석함으로써 쌍방향적이고 순환적인 소통 안에서 일어나는 기능-특수적인 화행들을 분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언어학적 언어습득 모형에서 강조하는 화용론적 소통 맥락을 파악하여 분석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 영아들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영아의 언어발달에서 화용론적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 자체도 적을뿐더러, 그 중 한국 영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또한, 선행 연구 중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이미 오래된 연구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기초적인 작업이긴 하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영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상호작용 분석을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언어 발달에서 사회적, 기능적 맥락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바, 본 연구가 그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맥락에 대한 녹화 시간이 15분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 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좀 더 확장되고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녹화 시간을 늘리거나 중단 연구로 연구 기간을 늘리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어머니와 영아가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며, 일상에 적용할 수 있고 시사점을 던지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연령별로 그룹을 나누었기 때문에 영아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언어 발달의 개인차를 반영하지 못했던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MLU나 어휘수 등 발달

적 개인차를 고려하여 그룹을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제한점이 있었다. 우선, 하나의 맥락 촬영을 끝낸 후, 맥락 사이에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이효과가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화행 분류 과정을 연구자 혼자 수행했기 때문에, 관찰자 간 일치도를 보지 못했다는 점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통제된 과정 하에서의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는 한국 영아와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한국만의 특성인지, 또는 다른 문화권에서도 나타나는 특성인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다. 기존연구와 비교할 수는 있으나, 같은 처치 내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아니므로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하다. 언어의 화용론적 맥락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 비교문화적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확장하여 다른 문화권과 비교하여 연구한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옥경, 김명순(2005). 영아 언어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의향, 김명순(2006). 7~24개월 영아의 의사소통적 몸짓과 어휘 습득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217-234.
- 배소영(2002a). MCDI-K 영유아용. 한국영아발달연구센터.
- 배소영(2002b). MCDI-K 유아용. 한국영아발달연구센터.
- 이승복, 장유경(1999). 어휘 획득 과정에서의 언어적 입력과 인지적 제약.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2), 49-65.
- 이혜련, 이귀옥(2005). 아동의 초기 언어발달과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 간의 관계: 동사와 명사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6), 205-216.
- 장유경(2004a). 한국영아의 초기어휘발달: 8-17개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1), 77-99.
- 장유경(2004b). 한국영아의 초기어휘발달: 18-36개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4), 91-105.
- 장유경, 임현정, 박금주(2004). 언어적 입력의 품사가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05-120.
- 장유경, 최윤영, 김소연(2005). 한국 영아의 초기 의사소통: 몸짓의 발달. *아동학회지*, 26(1), 155-167.
- 조성숙, 김미경, 박선연, 홍은미, & 조숙환(2007). 자폐성 장애아동의 화행(speech acts) 능력. *언어청각장애연구*, 12, 215-236.
- Acredolo, L. P., & Goodwyn, S. W. (1988). Symbolic and gesturing in normal infants. *Child Development*, 59, 450-466.
- Au, T. K., Dapretto, M., & Song, Y. K. (1994). Input vs. constraints: Early word acquisition in Korean and English.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3, 567-582.
- Bates, E., Dale, P., & Thal, D. (1995).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theories of language development. In Fletcher, P. & MacWhinney, B. (Eds.), *The handbook of child language* (pp. 96-151). Oxford, England: Blackwell.
- Bloom, L. (1993). *The transition from infancy to language: Acquiring the power of express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oom, L., Tinker, E., & Marguluis, C. (1993). The words children learn: Evidence against

- a noun bias in children's vocabularies. *Cognitive Development*, 8, 431-450
- Bornstein, M. H., Cote, L. R., Marital, S., Painter, K., Park, S.-Y., Pascual, L., Pêcheux, M.-G., Ruel, J., Vunuti, P., & Vyt, A. (2004). Cross-Linguistic Analysis of Vocabulary in Young Children: Spanish, Dutch, French, Hebrew, Italian, Korean, and American English. *Child Development*, 75(4), 1115-1139.
- Choi, S. & Gopnik, A. (1995). Early acquisition of verbs in Korean: A cross-linguistic study. *Journal of Child Language*, 22, 497-529.
- Choi, S. (2000). Caregiver input in English and Korean: use of nouns and verbs in book-reading and toy-play contexts. *Journal of Child Language*, 27, 69-96.
- Crais, E., Douglas, D. D., & Campbell, C. C. (2004). The intersection of the development of gestures and intentionality.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7, 678-694.
- Dromi, E. (1987). *Early lexical development*.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romi, E. (1993). The mysteries of early lexical development. In Dromi, E. (Eds.) *Language and cogni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p. 32-60). Norwood, NJ: Ablex..
- Gentner, D. (1982). Why nouns are learned before verbs: linguistic relativity versus natural Partitioning. In Kuczaj, S. A. (ed.), *Language development, Vol.2: Language, thought and culture* (pp.301-334). Hillsdale, NJ: Erlbaum.
- Goldfield, B. A. (1993). Nouns bias in maternal speech to one-year-olds. *Journal of Child Language*, 20, 85-100.
- Goldfield, B. A. (2000). Nouns before verbs in comprehension vs. production: the view from pragmatics. *Journal of Child Language*, 27, 501-520.
- Goodwyn, S. W., & Acredolo, L. P. (1993). Symbolic gesture versus word: Is there a modality advantage for onset of symbol use? *Child Development*, 64, 688-701.
- Goodwyn, S. W., & Acredolo, L. P., & Brown, C. A. (2000). Impact of symbolic gesturing on early language development.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24, 81-103.
- Kim, M. Y., McGregor, K. K., & Thompson, C. K. (2000). Early lexical development in English- and Korean-speaking children: language-general and language-specific patterns. *Journal of Child Language*, 27, 225-254.
- Kolanovic, D. (2008). 허니hil 오늘은 바쁜날. 중앙출판사(JDM)
- MacWhinney, B. (2007). Part1: The CHAT Transcription Format. In *The CHILDES Project: Tools for Analyzing talk - Electronic Edition*.
- MacWhinney, B. (2008). Part2: The CLAN Programs. In *The CHILDES Project: Tools for Analyzing talk - Electronic Edition*.
- Maguire, M., Hirsh-Pasek, K., & Golinkoff, R. (2006). A unified theory of word learning: Putting verb acquisition in context. In

- Hirsh-Pasek, K., & Golinkoff, R., (Eds.), *Action meets word: How children learn verbs* (pp.364-391). Oxford University Press.
- Markman, E. (1987). How children constrain the possible meanings of words. In Neisser, U. (ed.), *Concepts and conceptual development: ecological and intellectual factors in categorization*. Cambridge: C. U. P.
- Matychuk, P. (2005). The role of child-directed speech in language acquisition: a case study. *Language Sciences*, 27, 301-379.
- McEachern, D., & Haynes, W. O. (2004). Gesture-speech combination as a transition to multiword utterance.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3(3), 227-235.
- Nelson, K. E., Bonvillian, J. D. (1973). Concepts and words in the 18-month-old: Acquiring concept names under controlled conditions. *Cognition*, 2(4), 435-450.
- Ninio, A., Snow, C. (1988). Language acquisition through language use: The functional sources of children's early utterances. In Levy, Y., Schlesinger, I., Braine, M. (ed.), *Categories and processes in language acquisition* (pp.11-30). Hillsdale, NJ.
- Ninio, A., Wheeler, P., Snow, C., Pan, B. A., & Rollins, P. R. (1991). *INCA-A: Inventory of Communicative Acts-Abridged*. Coding manual distributed by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ambridge, MA.
- Piper, T. (1988). *Language and Learning: The Home and School Years*. Prentice-Hall, Inc, Upper Saddle River, NJ.
- Robert, E., & Owens, Jr. (2005). 언어 발달. (이승복, 이희란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Roger E. Kirk. (1995). *Experimental Design: procedure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Sevcik R. A. (2006). Comprehension: An overlooked component in augmented language development.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8(3), 159-167.
- Tardif, T. (1996). Nouns are not always learned before verbs: evidence from Mandarin speakers' early vocabular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2(3), 492-504.
- Tardif, T., Gelman, S. A., & Xu, F. (1999). Putting the "Noun Bias" in Context: A Comparison of English and Mandarin. *Child Development*, 70(3), 620-635.
-
- 1차 원고 접수: 2009. 01. 15
수정 원고 접수: 2009. 02. 13
최종 게재 결정: 2009. 02. 14

Nouns and Verbs Acquisition of Korean Infant From the Viewpoint of Pragmatics

- Focusing on 'Expression' and 'Comprehension' -

Soo-Jin Choi Hee-jeong Bang Soon-hang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pragmatic contexts in which nouns and verbs are used in speech to young children with analyzed the distribution of nouns and verbs in maternal and child speech and maternal speech acts. Participants were 24 mother-infant dyads. Their interactions in two contexts(toy-play and book-reading) were videotaped in their home and videotaped interactions were transcrib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speech data show that mother focused verbs in toy-play contexts and nouns in book-reading contexts. But, infants speak significantly more noun types and noun tokens than verb types and tokens in both contexts. Therefore, present study support early predominance of nouns pattern. Second, When mothers elicit and reinforce children's verbal responses, they are far more likely to encourage the production of nouns than verbs. On the other hand, when mothers elicit and reinforce children's behavioral responses, they request children to perform actions more often than to identify objects. Moreover, mothers more often prompt children to produce an action than to produce a verb. This patterns appear regardless of ages and contexts. Speech acts analysis from the viewpoints of pragmatics indicate that expressive vocabulary analysis can not explain infant's overall language development. After all, this study's findings suggested that mother-infant's function-specific interac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infant's language development.

Keyword: viewpoint of pragmatics, language development, noun/verb acquisition, production/comprehension, speech acts, mother-infant interaction